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역량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drogynous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공 인 숙*
Kong, In Sook
최 연 실**
Choi, Youn Shi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of androgynous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to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by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androgynous people as parents compared with parents who are other-typed in their sex-role identity. The subjects were 362 third and sixth grade children and their parents selec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a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scale, a perception of maternal warmth and control scale, a perception of paternal warmth and control scale, parent's self-esteem scale, and parent's sex-role identity scal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χ^2 test, two way-ANOVA, one way-ANOVA, Cronbach's α and Scheffé-test were used for data-analysis.

The major findings showed that (1) Androgynous and masculine fathers had higher self-esteem than feminine or undifferentiated fathers. Androgynous, masculine, and feminine mothers had higher self-esteem than undifferentiated mothers. (2) There was no difference i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s related to parent's sex-role identity. Androgynyous parents were not more likely to be authoritative parents. (3) Sons of androgynous parents had higher self-perceived competence than those of sex-typed parents, while daughters of sex-typed parents had higher self-perceived competence than those of androgynous parents.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Ⅰ. 문제의 제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이나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왔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성역할 정체감으로서 '심리적 양성성'에 대한 연구(Bem, 1975; Kaplan & Sedney, 1980; Spence, Helmreich, & Stapp, 1975)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연구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설명력이 강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더불어, 여성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고정관념을 극복할 대안적 성역할 정체감을 모색하려는 실천적 요구가 깔려 있었다. 심리적 양성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기존의 시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던 성정형화된 사람들과 달리 성별에 따라 고정된 개인의 역할과 행동양식을 취하기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잘 적응하는 등의 장점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양성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특성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였고, 때때로 행복한 삶의 한 모델로서 제안되기도 하였다(Kaplan & Sedney, 1980).

그런데 이와같은 심리적 양성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람직한 심리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들이 과연 부모로서도 성전형적인 부모들에 비하여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양성성을 연구해왔던 연구자들(Bem, 1974, 1975; Helmreich, Spence & Holahan, 1979; Spence & Helmreich, 1979)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시도한 바 있었고, 양성성을 가진 개인들이 부모로서도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즉 양성성 연구자들의 결과를 반박하는 Baumrind(1982)는 양성성이 부모에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성적인 어머니는 덜 양육적이며 양성적인 아버지는 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역량감의 차이는 부모의 애정과 엄격히 성숙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었으므로, 심리적 양성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부모의 특성이라고 확실히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성역할 특성을 독립변수로 다룬 연구들이 주로 자녀양육 참여와의 관계(박문학, 1989; 윤종희·이인숙, 1993; 이희숙, 1984)를 살펴보았으며, 부모가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졌을 때 그들의 자녀가 다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특히 성정형화된 특성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높게 자신의 역량을 지각하고 있는지의 구명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양성성의 특성을 지닌 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성전형적인 부모보다 효율적인 심리적 환경에서 사회적·인지적으로 더 역량있는 자녀로 사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특히 양성성의 의미안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정적인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이 통합되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Kaplan & Sedney, 1980; 김태련 외 1989:21),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의 성역할 정체감이나 양성성의 내용은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의 성역할 특성에 기반한 '양

성성'이 보다 능력있는 아동의 양육으로 이끌 것인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이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취하는 양육행동이나 방식에 의해 달라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940년대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원을 하위차원으로 세밀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주요 양육행동변수 조합을 통해 모델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Peterson, & Rollins, 1987; 473-475). Baumrind(1973)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따라서 양육행동을 구분하고, 역량 발달에 이상적인 민주적(authoritative) 유형과 역량 발달을 저해하는 권위적(authoritarian) 유형이 부모의 온정 차원에서 현격하게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Baumrind(1982)는 보다 이상적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유형을 주로 취하는 부모들은 성전형적인 부모들이며 양성적 부모들은 주로 '아동중심적'인 양육방식을 취한다고 밝히면서 양성적인 부모의 자녀들의 역량감이 성전형적인 부모의 자녀들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로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성적인 특성이 바람직한 자질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으로서도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양성적인 특성이 과연 개인적 심리적 특성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인지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양성적인 부모들은 다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부모, 특히 성전형적인 부모들과 다른 양육행동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양성적인 부모들이 성전형적인 부모들보다 자녀를 더 잘 사회화하는지를 자녀의 자기역량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와 양성성의 측정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의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인가를 나타내는 성정체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성정체감이 생물학적 개념임에 반해 성역할 정체감은 생물학적·역사적·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발달하는 개념(Bloock, 1973)이다. 특히 미국에서 70년대 중반에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적인 모형으로서의 '양성성' 개념이 각광을 받았다. 양성성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모두 높은 정도로 소유한 상태로 규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야의 연구는 일관성이 없으며(정옥분, 1986), 과연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현대 사회의 적응에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 변수를 다룬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양성성이 일관성있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이미숙, 1992).

이에 관해 연구자들은 양성성의 두 축을 구성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 만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상호 독립적 차원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양성성"의 올바른 개념 규정이 가능하다(이미숙, 1992)거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도

구들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가 각 연구 가설에 맞는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Wilson & Cook, 1984; 이미숙, 1992, 재인용)고 보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로는 BSRI가 가장 많았고(이미숙, 1992). 한국에서 성역할 정체감 측정 도구를 개발한 연구로는 김영희(1988), 정진경(1990), 장하경·서병숙(1991)의 연구가 있다. 김영희(1988)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40문항의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검사에서는 문항 선정에서 여성성 척도에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포함시켜 양성성 측정이 불가능하다(정진경, 1990)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정진경(1990)은 성격특성 항목만을 수집하였으며, 특정 지역의 소수 표본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을 수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장하경·서병숙, 1991). 장하경·서병숙(1991)은 여성과 남성의 성격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뿐 아니라 관심과 흥미 분야까지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며, 청년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50문항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을 구분하는 채점방식에 있어서 초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가 t 검증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나(Bem, 1974), 이 방법은 차이 점수가 사용될 때 각 척도 점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Spence et al., 1975).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중앙치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해 왔으나, 이 방식은 첫째, 분류할 때 개인의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앙점수가 나온 모집단의 성질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자주 지적되어 왔다(Kaplan & Sedney, 1980).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들로 대표성있는 표본집단을 통한 기존점수를 규정하여 사용하거나, 측정도구상 점수범위의 중간점수를 사용하는 것 등이 제안되기도 하고(이미숙, 1992), t값을 기준으로 성전형화된 집단을 분류하고, t값의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에만 중앙치반분법을 혼용하여 양성적 집단과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Sedney, 1981).

2. 심리적 양성성과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양성성이 자녀를 보다 효율적인 사회화로 이끄는 특성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에 의해 구분된 양성성이 바람직한 개인적 속성이 되는지를 자존감과의 관계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정옥분(1986)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미국의 경우는 자존감이 남성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양성성이 자존감 설명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숙(1986) 역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성적인 경우에 미분화 경우보다 자존감이 높으며, 양성적인 아버지 역시 미분화 아버지보다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적인 경우에 미분화된 경우나 성전형적인 경우보다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숙(1982)은 성역할 정체감과 관

련 변수를 다룬 국내 연구 44편을 요약 정리하면서, 양성성은 일관성있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3. 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개념화나 구체적 연구에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 Baumrind (1973)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따라서 양육행동을 구분하고, 역량 발달에 이상적인 민주적(authoritative) 유형과 역량 발달을 저해하는 권위적(authoritarian) 유형이 부모의 온정 차원에서 현격하게 구별된다고 하였다.

한편 자기역량감은, 아동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공인숙, 1989). 즉 아동이 어떤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와 연결해 볼 때, 온정과 통제가 적절히 배합된 민주적 양육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유형에 비해 더 높은 아동의 자기역량감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다(공인숙, 198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인지적, 사회적 역량감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역량감에서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주리(1991)는 가정환경변수 중에서 정서적 분위기가 아동의 자기역량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은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자기역량감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Baumrind(1982)는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통제, 온정을 유사 개념인 요구와 반응성으로 파악하여 부모의 양육유형을 10가지로 나누고 양성적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 차이가 없으며, 양성적인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 양성적인 어머니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성전형적인 어머니는 보다 반응적이고 성전형적인 아버지는 보다 엄격하므로, 성전형적인 부모는 매우 요구적이고 적절한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민주형, 전통형, 요구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반면 양성적인 부모는 반응성은 높고 요구는 낮으므로 아동중심적 양육 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그는 양성적인 부모는 모두 온정적이나 비통제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여성적 어머니는 온정적이고, 남성적 아버지는 통제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온정 정도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Baumrind, 1973; Rollins & Thomas, 1979:352)는 입장에서 부모의 온정 및 통제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객관적인 부모의 행동보다도 그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하여 아동의 특성이 영향받는다(Rowe, 1981; Rohner, 1986:102)는 입장을 수용하여, 부모의 온정과 통제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4. 양성적 부모와 아동의 자기역량감

양성적인 부모가 다른 성역할 특성, 특히 성

전형적인 부모보다 더 역량있는 자녀로 사회화시킬 것인지를 연구한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별로 없었다. 다만 양성성연구자들에 의해 심리적 양성성이 높은 사회적 적응력을 갖게 하는 개인적 자질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Bem, 1974, 1975; Helmreich, Spence, & Holahan, 1979; Spence & Helmreich, 1979).

Baumrind(1982)는 양성적인 부모가 양육행동에서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민주형(authoritative)이기 보다는 자녀중심적이며, 성전형적인 부모가 양육행동에서 이상적인 민주형에 가깝다고 했다. 그 결과 성전형적인 부모의 자녀가 양성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역량이 높았음을 보고하여 양성성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바를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Spence(1982)는 Baumrind가 Bem의 BSRI와 자신의 PAQ의 이론적 배경의 상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분석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자기역량감에 미치는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단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논박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양성적인 부모가 자존감, 양육행동과 자녀의 역량감에서 다른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부모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부모의 온정과 통제, 부모의 자존감, 아동의 자기역량감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부모의 자존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양성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전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양성적인 부모의 자녀는 성전형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자기역량감이 높은가?

2. 변수의 정의

(1) 성역할정체감:개인이 자기자신을 얼마만큼이나 남성적인 성격특성 혹은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신의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인가를 나타내는 성정체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성정체감이 생물학적 개념임에 반해 성역할 정체감은 생물학적·역사적·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형성·발전하는 개념이다(Block, 1973). 본 연구에서는 Bem(1974)에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의해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2) 자존감:자아에 대한 정서적 방향과 강도로, 자아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이다(Damon & Hart, 1988:14).

(3) 양육행동: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민주적 유형, 권위적 유형, 허용적 유형, 방임 유형으로 나뉜다. 이때 온정은 부모가 애정,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통제는 아동이 성숙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부모가 규칙과 금지를 부과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4) 자기역량감:아동이 어떤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3학년

이상의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에 대한 개념이 세분화되며, 각 숙련 부문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개념까지 갖게 된다(Harter, 1982).

① 인지적 역량감:아동이 학교 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관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

② 사회적 역량감:아동이 동료로부터 승인받거나 인기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

③ 신체적 역량감:아동이 야외 게임이나 운동에 관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 이상의 역량감은 아동의 각 영역에서 수행에 대한 도구적 판단을 의미한다.

④ 자아가치:아동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만족하는가에 대한 정서적 판단.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첫째, 아동이 약 8세 이후에 역량의 각 부문 간의 변별을 하고, 총체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는 점(Harter, 1982)과, 둘째, 국민학교 수준의 아동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이 아직 크다(Berndt, 1979)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서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집 단	빈도	(%)
어머니의 연령	30~39세	239	(66.8)
	40~49세	113	(31.5)
	50~59세	6	(1.7)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94	(26.3)
	고졸	126	(35.2)
	전문대졸 이상	138	(38.5)
아버지의 연령	30~39세	101	(28.1)
	40~49세	231	(64.4)
	50~59세	27	(7.5)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	(17.9)
	고졸	102	(28.6)
	전문대졸 이상	191	(53.5)
자녀 수	1명	31	(8.6)
	2명	251	(69.9)
	3명	56	(15.6)
	4명 이상	21	(5.9)
아동의 성별	남자	170	(47.6)
	여자	187	(52.4)
아동의 연령	7~8세	46	(12.8)
	9~10세	99	(27.5)
	11~12세	211	(58.7)

2. 측정 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선행 연구(공인숙, 1989; 박성연, 1989; 이 숙·박성연, 1988; 장하경·서병숙, 1991; Harter, 1982; Rosenberg, 1979)를 참고하여 (1)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3) 부모의 자존감 (4) 아동의 자기역량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양성성이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척도에는 Bem의 성역할 검사(BSRI), Spence와 동료들이 개발한 성격속성 질문지

(PAQ), Berzins 등의 PRF ANDRO 척도, Heilbrun의 형용사 체크 리스트를 통한 양성성 검사 등이 있지만(Kaplan & Sedney, 198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부모의 연령층을 포괄하는 장하경·서병숙(1991)의 척도를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장하경(1991)의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1]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중성성 10문항으로 총 문항수는 50개이며, 7점 Likert 방식으로 되어있다. 아버지의 남성성척도의 신뢰도는 α=.92, 아버지의 여성성척도의 신뢰도는α=.85, 어머니의 남성성 신뢰도는 α=.91, 어머니의 여성성 신뢰도는 α=.87였다.

부모의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척도를 번역한 후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총 문항수는10개이며,5점 Likert방식으로 구성된다. 아버지의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α=.72, 어머니의 자존감척도의 신뢰도는 α=.70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척도와 통제 척도는 공인숙(1989), 박성연(1989), 이 숙·박성연(1988)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박사과정수료 이상의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온정 척도는 각각 13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에 α=.83이고, 어머니의 온정 척도의 신뢰도는 α=.84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 척도는 각각 9문항, 4점 Likert로 구성되며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α=.67, 어머니의 경우 α=.64이다.

아동의 자기역량감 척도는 Harter(1982)의 척도를 참고하여 척도를 번역한 후 석사이상의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아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지각하는 인지적 역량감(4문항, α=.56), 사회적 역량감(5문항, α=.59), 신체적 역량감(5문항, α=.70)과 자아가치(2문항, α=.36)를 측정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2]

3. 자료의 수집 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199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에 걸쳐 강북에 소재한 S국민학교와 강남의 S국민학교에서 406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총 1218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아동의 자기역량감은 아동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측정은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각각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한 후 봉투에 봉하여 회수하였다. 조사 결과 378부를 회수하였고 부실기재된 16부를 제외하고 총 36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

1)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외부준거 변인으로서 중년기 위기감을 개입하여 분석하였다.

2) Cronbach α는 문항 수에 의하여 그 값이 영향받으므로, 2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가치 영역은 특히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를 구하였다. 그 외에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χ^2 검증, 이원변량분석, 일원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사용하였다.

Ⅴ.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온정과 통제, 자존감과 자녀의 역량감의 전반적 경향

〈표 2-1〉을 보면 아버지의 남성성 평균은 105.46, 여성성 평균은 91.82, 어머니의 남성성 평균은 94.05, 여성성 평균은 104.45로 역시 아버지에게서는 남성성이, 어머니에게서는 여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여성성이나 어머니의 남성성도 가능점수와 비교해보면, 약간 높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자존감 평균은 38.47, 어머니의 자존감 평균은 37.50으로, 가능점수와 비교해 볼 때, 양쪽 모두 약간 높은 편에 속하나 어머니의 평균이 약간 낮은 편이다. 온정과 통제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평균이 각각 48.08, 30.46으로, 아버지의 평균 43.26, 30.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역량감은 가능점수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편이었다. 〈표 2-2〉에서는 Sedney (1981)의 제언에 따라 부모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먼저 t검증에 의하여 성전형화된 집단을 추출한 후, 다시 남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후 남은 집단에서 원래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이용하여 양성적인 집단과 미분화된 집단을 분류하였다.[3)]

〈표 2-1〉 부모의 남성성, 여성성, 자존감, 온정, 통제와 아동의 역량감의 전반적 경향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능점수범위
부	남성성	105.46	20.22	20-140
	여성성	91.82	17.92	20-140
	자존감	38.47	5.21	5- 50
	온 정	43.26	6.29	13- 52
	통 제	30.41	.405	11- 44
모	남성성	94.05	21.56	20-140
	여성성	104.45	17.54	20-140
	자존감	37.50	5.10	5- 50
	온 정	48.08	6.20	13- 52
	통 제	30.46	3.86	11- 44
아동	인지적역량감	11.53	2.53	4- 16
	사회적역량감	14.45	3.25	5- 20
	신체적역량감	14.02	2.53	5- 20
	자아가치	5.67	1.65	2- 8

〈표 2-2〉 부모의 성역할정체감

	집 단	빈 도	(%)
부	남성적	125	(42.7)
	여성적	18	(6.1)
	양성적	79	(27.0)
	미분화	71	(24.2)
	계	293	
모	남성적	19	(7.0)
	여성적	119	(43.9)
	양성적	82	(30.3)
	미분화	51	(18.8)
	계	271	

3)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분류방식들은 모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Sedney의 이 분류방식도 t검증을 하기 위한 기본적 가정인 독립성의 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주로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양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나타내었다. 미분화된 경우도 20% 내외를 보였으며, 자신의 성별과 전도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경우는 미미한 편이었다.

2.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자존감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 부모의 자존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추후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자존감

	집단	빈도	평균	F	Scheffé검증
부	양성적	107	40.87	25.04***	A
	남성적	59	40.06		A
	여성적	59	37.55		B
	미분화	98	35.78		B
	계	323			
모	양성적	117	39.65	23.54***	A
	남성적	48	38.75		A
	여성적	59	37.49		A
	미분화	109	34.65		B
	계	326			

*** $p < .001$

이런 차이는 아버지의 경우는 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집단의 자존감이 여성적이거나 미분화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양성적이거나 남성적, 여성적인 집단이 미분화된 집단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이것은 정옥분(1986), 이 숙(1986), Baumrind(1982)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양성적 부모와 성전형적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

양성적 부모와 성전형적 부모간의 양육행동 유형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이때 양성적 부모는 부모 모두가 양성적인 경우와, 한편은 성전형적이지만 다른 한편이 양성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성전형적인 부모는 아버지는 남성적이고 어머니는 양성적인 부모에 한정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적이면서 통제적인 민주적 유형, 온정적이면서 비통제적인 허용적 유형, 비온정적이며 통제적인 권위적 유형, 비온정적이며 비통제적인 방임 유형으로 나누었다.

검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양성적 부모와 성전형적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

양육행동	집단		계	χ^2
	양성적	성전형적		
민주적유형	33(40.7)	18(47.4)	51(42.9)	
허용적유형	10(12.3)	3(7.9)	13(10.9)	
권위적유형	14(17.3)	7(18.4)	21(17.6)	
방임유형	24(29.6)	10(26.3)	34(28.6)	.85
계	81	38	119	

즉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양성적인 경우와 성전형적인 경우에 따라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적인 심리 특성이 바람직한 부모 양육행동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역량감이 높은 자녀로 사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이 자녀에 대한 온정과 통제로 표현된 양육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개인적 심리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이 부모로서의 자녀양육행동에 과연 반드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와 같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압력이 큰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심리적 선호가 자녀를 키우는 양육행도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양성적이라고 해도 자녀를 반드시 자신의 심리특성의 성향대로 키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Baumrind(1982)는 양성적인 부모가, 반응성이나 요구 등의 양육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Authoritative) 부모의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대신 자녀중심적(Child-centered)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양성적인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양육방식을 구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시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Spence(1982)는 반드시, 양성성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단성(instrumentality)과 표현성(expressiveness)을 고루 갖춘 부모가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aumrind나 Spence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에 대해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이유로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인 온정과 통제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실상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차원은 매우 다양하고 개념들도 복잡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온정과 통제만을 채택했기 때문에, 부모양육행동에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세째로, 본 연구에서의 온정과 통제라는 부모양육행동은 자녀가 지각한 것에 의해서 측정된 것이므로, 자녀에 의해서 실제 부모가 취한 양육방식과 다르게 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가지 이유 외에도 이 결과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4. 양성적 부모와 아동의 자기역량감

부모의 양성성, 성전형성,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기역량감이 차이 나는지 보기 위하여, 부모의 성역할정체감(2)×아동의 성별(2)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아동의 자기역량감은 인지적 역량감, 사회적

역량감, 신체적 역량감, 자아가치로 구성되는데 분석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인지적 역량감, 신체적 역량감, 자아가치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1〉 부모의 양성성, 성전형성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역량감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부모의 성역할정체감(A)	1	.59	.59	.10
아동의 성별(B)	1	2.44	2.44	.40
A×B	1	80.10	80.10	13.23***

*** $p < .001$

〈표 5-2〉 부모의 양성성, 성전형성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역량감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부모의 성역할정체감(A)	1	3.31	3.31	.32
아동의 성별(B)	1	27.26	27.26	2.60
A×B	1	6.84	6.84	.65

〈표 5-3〉 부모의 양성성, 성전형성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 역량감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부모의 성역할정체감(A)	1	.42	.42	.04
아동의 성별(B)	1	37.44	37.44	3.39*
A×B	1	13.54	13.54	.27

* $p < .05$

〈표 5-4〉 부모의 양성성, 성전형성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역량감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부모의 성역할정체감(A)	1	.93	.93	.40
아동의 성별(B)	1	.00	.00	.00
A×B	1	14.07	14.07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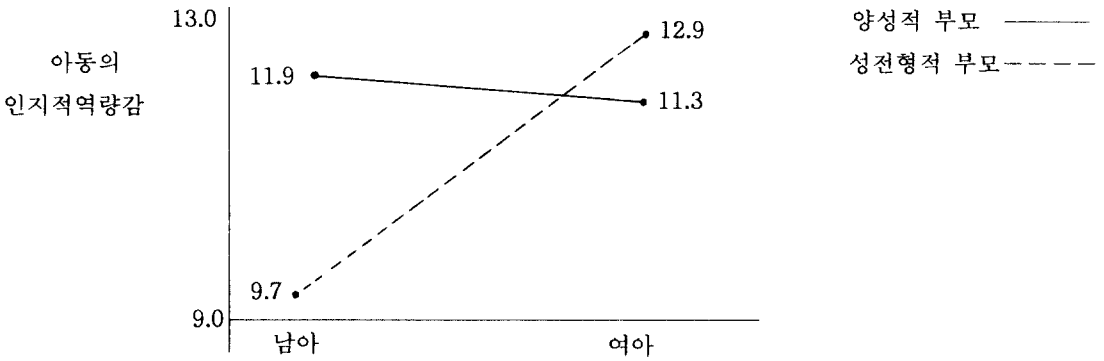
* $p < .05$

〈표 5-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의 신체적 역량감은 주로 아동의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남아의 신체적 역량감이 여아의 신체적 역량감보다 높았다. 이는 공인숙(1989), 김치영(1987), Harter(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적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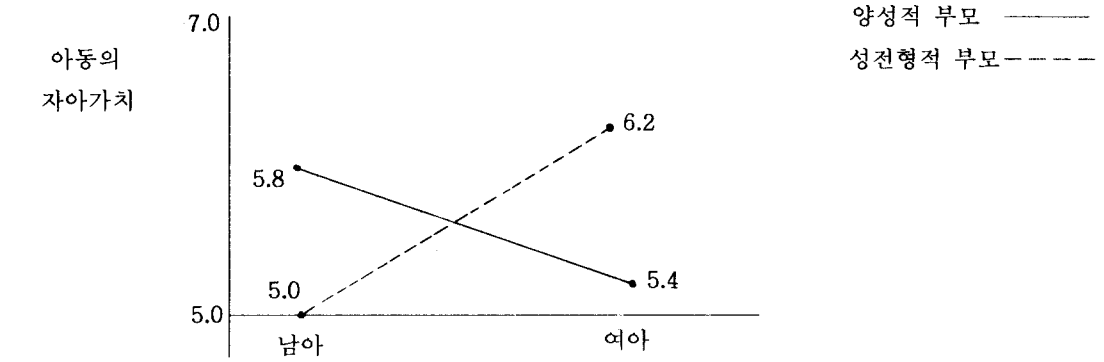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 〈표 5-4〉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인지적 역량과 자아가치에 미치는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동의 성별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동의 성별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즉 〈그림 1〉 〈그림 2〉에서 보듯이 남아는 부모가 양성적인 경우에 인지적 역량감과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고, 반면에 여아는 부모가 성전형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닐 때 인지적 역량감과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양성적인 부모의 자녀가 역량감이 뛰어나다는 Spence(1982)의 연구 결과나 성전형적인 부모의 자녀가 역량감이 높다는 결과(Baumrind, 198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림 1〉 아동의 인지적 역량감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그림 2〉 아동의 자아가치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양성성 개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으므로, 위의 결과를 어느 한 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양성적인 부모라고 해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 레파토리를 양육행동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결과는 Baumrind(1982)나 Spence와 동료들(1979)의 연구결과에서와는 달리 양성적, 성전형적 부모간에 양육행동유형에 차이가 없었던 앞에서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2개 국민학교의 3학년과 6학년 362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자존감과 아동의 자기역량감을 살펴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아버지가 여성적이거나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아버지보다 자존감이 높았다. 또한 양성적이거나 남성적, 여성적인 어머니가 성역할 정체감이 미분화된 어머니보다 자존감이 높았다.

둘째, 양성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은 성전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성역할 정체감이 문화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과 다양한 양육차원 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만을 택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성적인 부모의 자녀가 성전형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기역량감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역량감 중 신체적 역량감은 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역량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적 역량감과 자아가치는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동의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남아의 경우는 부모가 양성적일 때,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부모가 성전형적일 때 인지적 역량감과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양성적 개인이 부모로서도 효율적이라는 양성성 연구자의 결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Baumrind(198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Baumrind(1982)와 달리 아동의 자기역량감이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명확히 구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연구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부모의 실제적인 온정과 통제이기 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실제의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양성적인 부모가 성전형적인 부모보다 아동의 자기역량감을 높히는 양육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의 특정 국민학교를 유

의표집하여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나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폭넓은 변수를 도입한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제10권 1호. 64-78.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2.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문학(1989).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녀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워크샵. 아동연구를 위한 검사도구. 85-97.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11권 1호, 58-71.

윤종희·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1호, 191-202.

이미숙(1992). 성역할 정체감의 연구방법 및 관련 변수 고찰.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2권 1호, 61-89.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9권 1호, 47-61.

이 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 199-207.

이 숙·박성연(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제9권 2호, 61-94.

이주리(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131-143.

이희숙(1984).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자녀양육에서의 역할 및 수행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장하경·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4호, 167-179.

장하경(199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증.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2호, 123-137.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1호, 82-92.

하승민(1985). 어머니의 성역할태도와 자녀양육가치관. 아동학회지, 제6권 2호, 73-84.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umrind, D. (1982). Are androgynous individuals more effective persons and parents? Child Development, 53, 44-75.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55-162.

Bem, S. L. (1975). Sex-role adapti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gy, 31, 634-643.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inical Psychology, 45, 196-205.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512-526.

Damon, W., & Hart, D. (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082.

Helmreich, R. L., Spence, J. T., & Holahan, C. K. (1979). Psychological androgyny and sex role flexibility: A test of two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31-1644.

Kaplan, A. G., & Sedney, M. A. (1980). The psychology and sex role: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 (1989). 성의 심리학.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eterson, C.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M. B. Sussman & S. K. Steinments(Eds.). Handbook of Mariage and the Family. N. Y.: Plenum.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Rowe, D. C. (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03-208.

Sedney, M. A. (1981). Comments on median split procedures for scoring androgyny

measures, Sex Roles, 7, 1981, 217-222.

Spence, J. T. (1982). Comments on Baumrind's "Are androynous individuals more effective persons and parents?" Child Development, 53, 76-80.

Spence, J. T., & Helmreich, R. (1979). The many faces of androgyny: A reply to Locksley and Colt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32-1046.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